

## 출애굽기 1:1-15:21에 나타난 ‘이름’의 문학적 및 신학적 의미

유윤종\*

### 1. 시작하는 말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의 우리말 명칭은 ‘출애굽기’이다. 이 용어는 한자에서 차용한 것으로 그 의미는 ‘이집트 탈출기’이다. 이 용어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의 제목으로 적절해 보이지만 후대의 명칭이다. 영어와 독일어의 명칭은 ‘Exodus’이다. 이 명칭은 칠십인역에서 왔다. 칠십인역은 19:1의 ἐξόδου ‘길 밖으로’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출 이집트라는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40장의 시내 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아내지 못한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토라의 두 번째 책을 ‘쉐모트(שמות)’라고 불렀다. 유대교에서 토라의 명칭은 각 책의 1:1에서 가져와 붙였다. 그리하여 출애굽기에서도 1:1의 두 번째 단어를 가지고 와 ‘쉐모트’ 즉 ‘이름들’이라고 불렀다.<sup>1)</sup>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다른 것과 구별되고 식별하는 것이다. 다른 것들과 구별함으로써 그 대상의 특성에 어울리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름은 그 존재 자체와 동일시된다. 창세기의 창조기사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창조 세계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존재의 본질이 되는 생명을 불어 넣고 그 존재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창 2:19-20). 따라서 이름을

\* Cornell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 구약신학 교수. [yoonyoung@hanmail.net](mailto:yoonyoung@hanmail.net).

1) 모세오경에 붙여진 책명은 창세기와 레위기의 경우 각각 ‘베레쉬트’와 ‘바이크라’로 1:1의 첫 단어를 따 왔다. 민수기는 ‘미드바르’로 1:1의 네 번째 단어이며, 신명기는 ‘드바림’으로 두 번째 단어이다. 그러므로 후대에 책명을 선택할 때 책의 내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의 주체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존재의 본질과 특성을 알고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마술사와 점술가는 그 존재 뒤에 감추어진 비밀스런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이 가진 능력을 활용하고자 애썼다.<sup>2)</sup>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존재의 특성을 조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들의 이름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다. 이름을 찾으려는 자와 감추려는 자 사이에는 긴장과 대립이 존재한다.<sup>3)</sup>

이름 안에 존재를 만들어내는 신비한 마술적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믿음은 이집트 신화에 널리 퍼져 있다. 태양신 레는 75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각 이름은 그 존재의 한 부분을 형성하며 그 신의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5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각 이름은 권력의 현현을 상징한다. 신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sup>4)</sup>

이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발견된다. 바벨로니아의 창조신화인 에누마 엘리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위에 하늘이 이름 지어지지 않았고,  
밑에 마른 땅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는데<sup>5)</sup>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이며, 창조 작업이란 이름을 부름으로써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즉 이름이 곧 존재의 본질과 특성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름 혹은 말씀이 존재의 본질이며 힘이라는 개념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sup>6)</sup>

이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들이 ‘쉐모트(이름들)’라는 명칭을 가진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2) M. Rose, “Names of God in the OT”, *ABD* IV (1992), 1002.

3) 이 주제는 이집트의 ‘이시스와 레에 관한 전설’이라는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R. K. Ritner, “The Legend of Isis and the Name of Re (1.22)”, William W. Hallo and K. L. Younger, eds., *The Context of Scripture*, vol. 1 (Leiden: E. J. Brill, 1997), 33-34; 유윤중, “이름을 밝히는 것인가? 거부하는 것인가?: ‘신의 비밀스런 이름’에 비추어본 출애굽기 3:14”, 『서양고대사 연구』 46 (2016), 19-23. 구약성서 내에서는 창 32:24-32에서 유사한 모티프를 찾을 수 있다.

4) 유윤중, “이름을 밝히는 것인가? 거부하는 것인가?”, 17.

5) 조철수, 『수메르 신화』 (서울: 서해문집, 2003), 153.

6) F. L. Moriarty, “Word as Power in the Ancient Near East”, H. N. Bream, et al., ed., *Light Unto My Path*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74), 345-362; S. B. Noegel, “Literary Craft and Performative Power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Hebrew Bible in Context”, K. Smelik and K. Vermeulen, eds., *Approaches to the Literary Readings of Ancient Jewish Writings* (Leiden; Boston: Brill, 2014), 19-38.

문제가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름과 관련된 출애굽기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3:13-14와 6:2-3에 나타난 야웨의 기원과 의미에 관한 것이다.<sup>7)</sup> 이 글은 유대교 전승에서 붙여진 쉘모트라는 명칭에 따라 출애굽기 1:1-15:21 내에서 이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sup>8)</sup> 그 이름들이 출애굽기 내에서 문학적 및 신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밝히고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주어진 본문 안에서의 불일치 및 다른 자료들에 대한 이전의 통시적 연구 방법에 의한 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최종 본문을 하나의 완결된 구도를 지닌 이야기로 보는 공시적 방법론에 근거해 논의하고자 한다.<sup>9)</sup> 이 글은 시작하는 말(1장)로 시작한 다음, 출애굽기 1:1-15:21에서 이름을 드러낸 경우와 드러내지 않은 경우를 찾아 분석하고(2장), 그것이 출애굽기 내에서 어떤 문학적 및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3장), 맺는 말(4장)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2. 출애굽기 1:1-15:21에서의 이름

출애굽기 1:1-15:21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은 반면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드러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왕이자 신으로 숭배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직책만 나올 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반면 히브리 산파는 하찮은 일을 맡은 사람이

7) 이 연구에 관한 자세한 참고문헌은 다음을 보라. D. N. Freedman, “יהוה” YHWH”,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5 (1977), 500-525.

8) 이 글에서 이름과 관련된 연구를 1:1-15:21로 범위를 제한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 단락에는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과 파라오가 주로 등장하지만,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드러나는 반면 파라오와 이집트의 신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중적 구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둘째, 출애굽기에서 이름에 관한 주제는 15:22 이후에도 계속 드러난다. 그러나 이미 이집트를 탈출한 뒤의 상황이므로 이름을 둘러싼 갈등은 현저히 줄어들어 버린다. 이후에는 야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중심적인 내용은 주로 야웨의 본질과 속성을 드러내는 경우이다(20:1; 34:6-7 등). 34:6-7의 경우 야웨는 시내 산이라는 새로운 공간과 상황에서 새로운 특성을 밝힌다. 다음을 보라. M. P. Knowles, *The Unfolding Mystery of the Divine Name: The God of Sinai in Our Midst* (Downers Grove: IVP, 2012).

9) 필자가 통시적 관점에서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방법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방법론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통시적 관점에서의 출애굽기 연구에 의하면, 출 1:1-15:21은 주로 J, E문서와 P문서가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한 다양한 논쟁은 다음을 보라. M. S. Smith, “The Literary Arrangement of the Priestly Redaction of Exodu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BQ* 58 (1996), 26-29. 한편 공시적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B. Jacob, *The Second Book of the Bible, Exodus* (Hoboken: KTAV, 1992); J. P. Fokkelman, “Exodus”, R. Alter and F. Kermodé, eds.,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Cambridge: Belknap, 1987), 57-58.

지만 이름이 나온다. 또한 동일한 인명이나 신명도 감추어져 있다가 후에 나오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름을 드러낸 경우와 이름을 감춘 경우로 구분해 분석하고자 한다.

## 2.1. 이름을 드러냄

### 2.1.1. 이집트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1:1-7)

이 단락은 출애굽기의 서론이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며, 앞으로 전개될 해방 이야기의 서론 역할을 한다.<sup>10)</sup> 시작은 ‘브엘레 웨모트(בְּאֵלֵי וַעֲמוֹת), 이것들은 이름들이다’이다. 출애굽기의 서론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 이름들은 앞으로 형성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된다. 이 이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될 것을 암시한다. 한편 이 이름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킨다. 여기에 나타난 이름들은 야곱의 12아들이다. 이 이름은 창세기 46:8-27의 70명에 이르는 자세한 족보에 대한 요약이다. 이미 이집트에 있던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의 명단이 나온다. 아들들의 순서는 창세기 46장이 아니라 창세기 35:23-26의 명단에 근거한다. 즉 어머니의 서열에 따라 나온다. 레아, 라헬, 빌하, 실바의 순서로 12명의 명단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창세기 35:11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선포가 이미 실현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다.<sup>11)</sup>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sup>12)</sup> 이 선포는 출애굽기 1:7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나온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의 출현에 이르기까지의 약속은 미래에 달려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이 단락이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이 조상들이 후에 언급될 조상들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sup>13)</sup>

10) P. R. Andriñach, “Prologue to Liberation on Exodus 1:1-7”, *Word & World* 33:2 (2013), 140-141.

11) N. M. Sarna, *Exodu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New York: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3.

12) 이 글에서 성서의 인용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개역개정』을 따른 것이다.

13)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공간보다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알트(A. Alt)는 이 개념이 어떤 한 지파의 전통에서 기원했으며 그것이 온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족장들은 각 지파별로 따로 떨어져 ‘조상들의 신들’(gods of the fathers)로 존재하다가 ‘조상들의 하나님’(God of the fathers)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R. Routledge, *Old Testament Theology: A Thematic Approach* (Downers Grove: IVP, 2008), 8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2:24) 때문이었다. 아울러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전능의 하나님’(6:2)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도착한 족장들의 이름이 출애굽기의 서론에 등장한다.

### 2.1.2.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1:15)

1장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은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아이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1:8), ‘이집트 왕’(1:15, 17, 18), ‘파라오’(1:11, 19, 22) 등 이집트 최고 권력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직책으로 불린다. 하지만 낮은 계층인 산파의 이름이 나온다. 이 산파들이 히브리인인지 이집트인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히브리어 לְמִלְוֹת הָעֵבְרִיִּים는 ‘히브리 산파’ 혹은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로 번역할 수 있다.<sup>14)</sup> 랩슬리(J. E. Lapsley)는 후자로 번역하면 산파들은 이집트인이며, 이집트인 산파들의 협력은 민족적 경계를 허무는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주장한다.<sup>15)</sup> 하지만 본문이 히브리인을 위한 산파이든 히브리인 산파이든 간에, 출애굽기에서 ‘히브리’라는 표현은 민족적 개념보다는 계층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2:11). ‘히브리’라는 표현은 후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민족적 개념으로 통용되지만,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고대 근동 전역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떠돌아다니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폭넓게 나타난다.<sup>16)</sup> 히브리 산파를 계층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갈등의 구조가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권력과 힘 없고 약한 자 사이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해방 사역에 참여하고 돕는 자들은 낮은 자들이며 방해하는 자는 파라오이다. 낮은 지위의 산파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파라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산파들의 역할이 파라오의 역할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14) N. M. Sarna, *Exodus*, 7. 사나(N. M. Sarna)는, 이집트에서는 산파가 전문적인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소개한다. 두 사람의 이름은 셈어에 속한다. 십브라는 ‘아름다운 자’를 의미하며 이집트 노예들의 명단에 나오는 이름이다. 부아는 ‘빛나는 자’ 혹은 ‘소녀’를 의미하며 우가릿 신화에 나오는 다넬의 딸의 이름이다. B. S. Childs, *Exodus*, OTL (London: SCM, 1974), 20. 칠십인역과 불가타역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한 산파’로 번역한다. 다음을 보라. 장석정, “산파들의 민족성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4 (2017), 31-54.

15) J. E. Lapsley, *Whispering the Word: Hearing Women's Stories in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72.

16) C. J. H. Wright, “Response to Gordon McConville”, Craig Bartholomew, et al., eds., *Can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Zondervan, 2006), 285.

## 2.1.3. 영웅 모세(2:10)

야곱의 후손들이 처한 어두운 장면을 그린 1장은 2:1-10에 나타난 모세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능을 한다. 2:1-10은 모세의 탄생을 다룬다. 이 단락의 10절에서 모세의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 다른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모세의 탄생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모세의 탄생에 공헌한 사람은 총 5명으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바로의 딸, 시녀, 모세의 누이’이다. 그러나 모두 다 무명이다. 10절에 모세의 이름만 나온다. 모세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파라오의 딸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וַתִּקְרָא שְׁמוֹ מֹשֶׁה וַתֹּאמֶר כִּי מִן־הַמַּיִם מְשִׁיתָהּ

그녀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이다”라며 그녀는 말했다.(사역)

모세(מֹשֶׁה)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어근 מָשַׁה ‘(물에서) 건지다’(삼하 22:17; 시 18:17)에서 왔으며 능동 분사형으로 ‘건져낼 자’를 의미한다. 모세의 이름을 히브리어에 근거해 해석한 것은 본문의 나레이터에 의한 것이다. 파라오의 딸이 히브리어를 알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세라는 이름은 원래 이집트어에서 온 것이다. 이집트어에서 모세라는 이름은 ‘어린이, 이름’ 등을 의미한다. 아호모세, 프타모세, 라모세, 투트모세 등, 신의 이름과 결합된 많은 인명들이 이집트어에서 발견된다.<sup>17)</sup> 하지만 본문에서 ‘건져내다’를 의미하는 모세라는 이름은 이 아이의 미래를 비추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낼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sup>18)</sup>

## 2.1.4. 모세의 장인과 아내와 아들(2:16-22)

모세의 이름이 극적으로 드러난 후 모세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한다. 모세는 폭력 사건에 연루되며 쫓기는 신세가 된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2:11-15).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간다. 미디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은 드러난다. 먼저 모세의 장인으로 ‘르우엘’이다(2:18).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2:16)으로 의미는 ‘하나님의 친구’이다.<sup>19)</sup>

17) N. M. Sarna, *Exodus*, 10.

18) *Ibid.*

19) 모세 장인의 이름은 또한 이드로(출 3:1)와 호باط(민 10:29; 사 4:11)으로도 나온다. ‘이드로’는 히브리어로 ‘그의 각하’(His Excellency)를 의미한다. ‘호باط’은 ‘사랑받는 자’를 의미한다. 세 이름 사이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민 10:29에서 호باط은 르우엘의 아들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다음을 보라. W. F. Albright, “Jethro, Hobab and Reuel in Early Hebrew Tradition”, *CBQ* 25 (1963), 1-11.

두 번째 이름은 모세의 아내가 된 ‘십보라’로 히브리어로 ‘새’를 의미한다.<sup>20)</sup> 세 번째 이름은 모세의 첫째 아들로 ‘게르솜(גרשון)’이다. 이 이름에 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본문에 언급된 대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의미에서 보아 ‘나그네’를 의미하는 ‘게르(גר)’와 ‘거기’를 의미하는 ‘삼(שם)’이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이다(2:22). 둘째, 게르솜을 ‘쫓다, 추방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 גרש에서 온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이 어근은 17절에서 목자들이 르우엘의 딸들에게 한 행위이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는 그 사건에 개입해 목자들의 손에서 르우엘의 딸들을 건져낸다(19절). 게르솜을 이 어근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게르솜이라는 이름도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암시한다. 후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며(שרש, 6:1; 11:1; 12:39),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임을 보여준다.<sup>21)</sup>

#### 2.1.5. 하나님의 이름 야웨(6:2-5)

이 단락은 ‘나는 야웨다’로 시작한다(6:2). 이 구절은 3:14와 함께 야웨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짐멀리(W. Zimmerli)는 이 신학적 선포는 야웨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그의 의도를 완전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한다.<sup>22)</sup> 야웨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중이지만,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그의 임재와 신뢰와 능력을 만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sup>23)</sup> 이 야웨는 파라오와의 대결을 통해 이 세상의 다른 이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스스로 드러낼 것이다(8:10; 9:14). 그 과정을 통해 야웨라는 이름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은 야웨라는 이름의 능력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7:5, 17; 8:22; 9:29; 14:4, 18). 이 단락의 3-5절은 2절에 대한 주석이다. 야웨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3절에서 두 가지 사항을 설명한다. 첫째, 야웨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표현은 야웨와 조상들의 하나님을 연결시킨다.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אלהים)으로 나타난 분이 곧 야웨라고 설명한다. 야웨와 엘 샬다이를 일치시킨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할 것이지만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

20) N. M. Sarna, *Exodus*, 12.

21) Ibid.

22) W. Zimmerli, *I am Yahweh*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2), 1-28.

23) W. Brueggemann, “The Book of Exodus”, *New Interpreter's Bible* 1 (Nashville: Abingdon, 1994), 733.

24) 이 표현은 창 17:1-8과 35:11-12에 나온다. 그 의미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주로 힘과 군사적인 용맹을 표현하는 데 나온다.

속했다(창 15:13-21; 17:7-8).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야웨’라는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선포한다. 이 구절에 관한 해석은 매우 난해하다. 창세기 4:26과 모순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단락을 제사장 문서(P)에서 온 것으로 보고 ‘P 자료의 비역사적 신학 이론’이라고 평가한다.<sup>25)</sup> 이에 대하여 사나(N. M. Sarna)는 족장들에게 야웨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족장들은 야웨라는 이름이 가진 본질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고 해석한다.<sup>26)</sup> 이 단락에서 야웨의 이름에 대한 새로운 의미는 주어지지 않았다. 다만 야웨라는 이름이 가진 본질적인 능력이 곧 드러날 것임을 선언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하나님인 된다는 것이다. 야웨라는 이름이 가진 구원주이자 해방자라는 속성은 이후에 드러나며 반복된다(15:2-3; 20:2). 야웨의 이러한 속성의 생소함은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5:2).

야웨라는 이름을 밝힘과 동시에 야웨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그 언약을 실현시켜야 할 때가 되었음을 선언한다(4-5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할 내용은 족장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야웨라는 이름을 걸고 이루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해방이라는 선물이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과 이집트 탈출 사건이라는 구원사가 연결되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의 역사로 서술된다.

#### 2.1.6. 모세의 부모(6:16-20)

2:1-10에서 모세의 부모와 형제는 등장했지만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은 6장에 나온다. 이 족보는 2장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모세의 가족들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비밀스럽고 위협에 처한 영웅 탄생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6장에서 족보를 통해 이름을 밝힌다. 이제부터 그의 가족들이 큰일을 맡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모세는 레위로부터 4대에 속한다(레위-고핫-아므람-아론과 모세).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지금부터 모세의 가족 중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를 도와 야웨의 구원역사에 적

25) J. 더햄, 『출애굽기』, 손석태 역, WBC (서울: 솔로몬, 2000), 159를 보라.

26) N. M. Sarna, *Exodus*, 31. 유사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 Abba, “The Divine Name Yahweh”, *JBL* 80 (1961), 323-324; E. A. Martens, *God’s Design: A Focus o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94), 19.



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sup>27)</sup>

### 2.1.7. 야웨가 그의 이름(15:3)

1장에서 시작된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대결은 야웨의 극적인 개입으로 마침내 마무리된다. 야웨가 이스라엘 백성을 갈대바다에서 구원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의 이름을 스스로 선포한다. “야웨는 용사 시니 야웨는 그의 이름이로다”(15:3). 그는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야웨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15:11상). 야웨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이 지닌 속성을 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야웨의 속성을 알고 고백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야웨는 ‘힘, 노래, 구원,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용사’이다(15:2). 야웨라는 이름의 역사적 구현을 통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야웨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 2.2. 이름을 감춤

### 2.2.1. 파라오(1:8, 11, 15, 17, 18, 19, 22)

이집트에서 왕을 가리키는 용어는 ‘파라오’이다. 이 명칭은 *pr*(집)와 ‘3(큰)이 결합된 것으로 ‘큰 집’을 의미하며, 신왕조 이후에 왕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11, 19, 22절에 나온다. 반면 ‘왕’이라는 명칭도 동시에 사용된다(8, 15, 17, 18). 8-22절에서의 상황은 파라오의 이스라엘 박해와 그 상황에서 반기를 든 산파의 이야기이다. 산파들의 이름은 나오지만, 파라오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정체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히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신왕국을 세운 아호모세(1550-1525 BC)라고 여긴다.<sup>28)</sup> 나머지 구절에 등장하는 파라오의 실체에 대해서는 이집트 탈출 연대와 더불어 논의된다. 15세기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왕은 투트모세 3세(1479-1425 BC)이며, 13세기설에 의하면 라암세스 2세(1279-1213)이다. 두 명의 파라오 모두 전설적인 인물들이다. 하지만 1:8-22에서 이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27)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15:20에 그 이름이 처음 나온다.

28) 아호모세의 무덤 비문은 그가 히소스를 패배시킨 것과 남부 팔레스타인의 강한 성 샤루헨(Sharuhen)을 점령하고 구스에 전쟁을 나간 것을 묘사하고 있다. 아호모세가 히소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낸 것은 그의 통치 말기인 1530년경이었다. Betsy M. Bryan, “The Eighteenth Dynasty Before the Amarna Period”, Ian Shaw, ed.,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18.

### 2.2.2. 모세의 가족(2:1-10)

이 단락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 강에 던지라’는 파라오의 명령 아래 태어난 아기 모세의 운명을 다룬다. 이 과정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 첫째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의 아버지이다. 그는 ‘레위 가문 중 한 남자’(2:1)이다. 그의 가문은 고향 자손에 속하며, 그의 이름은 아므람이다(6:16-20). 둘째 인물은 아므람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 ‘레위 가문의 딸’이다. 그녀도 레위 가문으로 아므람에게 고모였고 이름은 요게벳이다(6:20). 셋째 인물은 태어난 아이의 누이로 그녀는 나일 강 강가에 버려진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임무를 맡았다(2:4). 본문에서 모세를 제외한 인물들의 이름이 감추어진 것은 모세라는 인물의 탄생과 그 이름에 초점을 두고자 함이다.

### 2.2.3. 하나님의 이름 예흐예(3:14)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소명을 맡은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3:13). 이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text{אֲנִי הָאֱלֹהִים}$ 라고 대답한다. 야웨라는 이름과 관련된 어원으로서는 유일무이한 이 구절의 의미와 해석은 매우 난해하다. 필자는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을 이름을 밝히려는 관점에서 시도된 해석들과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관점에서 시도된 해석들을 비교한 뒤 이 표현은 야웨의 이름을 밝히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야웨의 임재를 언어유희로 표현하면서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sup>29)</sup> 즉 이 표현은 ‘신의 비밀스런 이름’이라는 이집트의 상황이 반영된 것임을 이집트의 문헌과 구약성서의 본문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필자는 이 표현이 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임을 네 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첫째, 신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은 그 신의 본질과 속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들의 상하관계는 비밀스런 이름을 통해 유지된다. 상위신은 하위신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런 이름을 가진다. 그러므로 3:14에서 밝힌 신의 이름은 고유명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 표현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야웨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 유비관계 속에 놓인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야웨의 초월성에 대한 부정이다. 둘째, 하위신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상위신의 비밀스런 이름을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상위신은 감추려하고 하위신은 찾으려 하면서

29) 유윤중, “이름을 밝히는 것인가? 거부하는 것인가?”, 7-34.

두 신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것은 이집트에서 벌어지는 신들 간의 전투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이름을 알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마술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이름을 알고 주문을 외워 마술적 능력을 얻으려는 노력이 널리 있어왔다. 구약성서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부정적으로 본다. 넷째, 이집트에서 최고신 라의 비밀스런 이름은 감추어져 있다. 그 이름이 드러날 경우 최고신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sup>30)</sup>

3:14에서 야웨가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면서도 모호하게 드러낸 목적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재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미래를 향하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다.<sup>31)</sup> 3:14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하나님은 6:2-3에서 אֲנִי יְהוָה(나는 야웨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 3:14에서의 어원은 히브리어 יהי 동사와 관련되어 나오며, YHWH가 바로 그 어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3:14에서의 모호한 표현과 의미는 6:2-3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 2.2.4. 태양신 라(10:10, 12-14, 21-23)

이집트의 최고신은 태양신 ‘라’(Ra)이다. 출애굽기에서 태양신 라는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출애굽기에서 태양신 라는 조롱과 수모를 겪는 신으로 나온다. 첫 번째 10:10에 나온다.

בֹּרָא כִּי רָעָה נֶגְדַּךְ פְּנִיָּם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개역개정』)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새번역』)

이 장면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린이를 보내면서 한 말이다. 문자대로 번역하면 ‘보라 악이 너희들 앞에 있다’이다. 파라오가 한 말의 의미에 대해 많은 주석가들은 ‘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רָעָה를 태양신 ‘라’와 관련된 언어유희로 해석해왔다.<sup>32)</sup> 즉 파라오는 모세와 아

30) Ibid., 25-27.

31) C. D. Hertog, “The Prophetic Dimension of the Divine Name: On Exodus 3:14a and Its Context”, *CBQ* 64 (2002), 213-227.

32) J. Bloch, “Is the Egyptian Sun God Re Mentioned in the Bible?”, *JSOR* 14 (1930), 57; S. Rosenblatt, “A Reference to the Egyptian God Re in the Rabbinic Commentaries on the Old Testament”, *JBL* 60 (1941), 183-185;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Magnes Press, 1967), 126; G. A. Rendsburg, “Bilingual Wordplay in the Bible”, *VT* 38:3 (1988), 354-356.

론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녀들을 이끌고 떠난다면 라(Ra)가 너희들과 대적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본문에서 히브리어 ‘라’는 히브리어로 풀이하면 ‘악, 재앙’을 의미하지만, 이집트어의 발음으로는 태양신 라를 의미한다. 본문에서 성서 기자는 히브리어  $\text{רָא}$ 가 이집트어로는 태양신 ‘라’의 발음이며, 히브리어로는 악과 재앙임을 뜻하는 이중 언어 사이의 의미차이를 활용해 태양신 라를 은연중에 조롱하고 있다.

열 가지 재앙 중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다(10:1-20).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고 땅이 어둡게 되었다(10:15). 메뚜기로 인하여 태양신 라의 활동이 저지된 것이다. 즉 메뚜기에 패한 태양신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이다(10:21-29). 삼일 동안 이집트 전역에 흑암이 덮쳐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소에만 빛이 있었다. 이 재앙은 이집트에 정기적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폭풍(khamsin)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집트의 태양신 라에 대한 공격으로 라가 삼일 동안 활동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고센 지역에만 빛을 비춤으로서 야웨는 자신을 능력을 이집트인들에게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여덟 번째 및 아홉 번째 재앙은 태양신 라가 야웨에 의해 수모를 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2.5.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7:14-10:29; 12:12)

10가지 재앙에 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연현상이다. 첫째 재앙은 피가 아니라 나일 강 독의 부식으로 나일 강이 붉게 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그 외에도 파리, 이,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등의 재앙은 오늘날에도 발생한다.<sup>33)</sup> 둘째, 마술 경연대회이다. 10가지 재앙을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마술사와 경연대회를 벌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재앙은 명확하게 이집트의 마술사도 따라 행하였다. 세 번째 재앙에 대해 마술사들도 시도했지만 실패한 후 파라오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한다(8:19). 하나님은 권능으로 재앙을 일으켰지만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주문과 마법을 통해 재주를 부리는 것이다.<sup>34)</sup> 셋째,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공격이다. 열 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각종 신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미 지적해왔다. 나일 강에 대한 재앙은 나일 강을 기반으로 하는 하피(Hapi) 신에 대한 공격이고, 개구리 재

33) Greta Hort, “The Plagues of Egypt”, *ZAW* 69 (1957), 84-103; 70 (1958), 48-59; C. H. Gordon and G. A. Rendsburg,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New York; London: W. W. Norton & Company, 1997), 145에서 재인용.

34) C. H. Gordon and G. A. Rendsburg,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145.

양은 개구리 신 헤케트(Heqet)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처럼 다른 재앙들도 이집트의 신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공격의 핵심에는 태양신 라와 그의 아들인 파라오가 있다. 태양신 라에 대한 공격은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열 번째 재앙은 당시 이집트 제국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파라오를 향한 것이다. 파라오에 대한 공격은 밤중에 이루어졌다(11:4). 그것은 태양신 라가 가장 멀리 있을 때이다. 태양신 라에 대한 공격은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재앙의 경우 낮에 이루어졌지만 열 번째 재앙은 한밤중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태양신 라에 대한 야웨의 공격은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sup>35)</sup>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각종 신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은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 잘 드러난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12:12). 그러나 10가지 재앙 속에 이집트 신들의 이름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다. 신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집트의 최고신 파라오의 경우 이름은 조롱 속에 감추어져 나온다.

### 3. 출애굽기의 이름에 나타난 문학적 신학적 의미

출애굽기 1:1-15:21에 나타난 이름들의 특징을 종합하면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드러난 반면 이집트의 태양신 라와 파라오와 파라오의 딸과 마술사들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야웨의 이름과 모세의 부모와 누이와 형의 이름은 처음에 감추어져 있다가 나중에 나온다.

#### 3.1. 문학적 의미

출애굽기의 구조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제이콥(B. Jacob)은 출애굽기를 숫자와 장소를 고려해 양분한다. 이집트에 집중한 첫 부분은 1-18장으로 494절로 되어 있으며, 1:1-7:13; 7:14-11:10; 12-18장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제시한다. 시내 산에 집중한 둘째 부분은 19-40장으로 716절로 되어 있으며 19-24, 25-34, 35-40장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sup>36)</sup>

35) G. A. Rendsburg, “The Egyptian Sun-God Ra in the Pentateuch”, *Henoah* 10 (1988), 7.

36) B. Jacob, *The Second Book of the Bible, Exodus*, 1083-1087.

클리포드(R. C. Clifford) 역시 유사하게 출애굽기의 구조를 1-18장과 19-40장으로 양분하여 설명한다.<sup>37)</sup> 베스터만(C. Westermann)은 공간을 중심으로 I. 이집트에서(1:1-15:21), II. 시내 산으로(15:22-19:2), III. 시내 산에서(19:3-40:38)로 구분해 삼분법을 취한다.<sup>38)</sup> 힐(A. E. Hill)과 왈튼(J. H. Walton) 역시 공간을 중심으로 I.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1:1-12:36), II. 이집트에서 시내 산으로의 여행(12:37-18), III. 시내 산에서의 언약과 율법(19-40), 이렇게 삼분법으로 설명한다.<sup>39)</sup> 이 외에도 출애굽기의 구조를 다섯 단락<sup>40)</sup> 혹은 여섯 단락<sup>41)</sup>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삼분법을 취하는 학자들 중에도 첫 부분이 어디에서 끝나는지에 관해서도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크게 12:36에서 끝난다는 주장과 15:21에서 끝난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출애굽기에서 이름과 관련된 주제가 1:1-15:21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출애굽기의 큰 단락이 파라오와의 전투가 끝난 15:21에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름과 관련된 주제에 따라 출애굽기의 구조를 분류하게 되면 베스터만이 분류한 출애굽기의 구조가 가장 잘 어울리며 출애굽기의 첫 부분은 15:21에서 끝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름과 관련된 또 다른 문학적 의미는 ‘이름을 드러냄과 숨김’에 나타난 문학적 의도에 있다.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로 수난을 겪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 이 때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다. 1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산파들과 관련해 나온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기를 살려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했다고 언급한다(1:17-21). 이때 하나님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섭리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1:7).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조상들에게 한 언약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창 15:5; 17:6; 28:3-4, 14; 35:11). 모세가 태어나고 살인을 한 후 도망자 신세가 된 채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 그의 딸과 결혼에 이르고 아들을 낳기까지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등

37) R. C. Clifford, “Exodus”, Raymond E. Brown, Joseph A. Fitzmyer, and Roland E. Murphy, eds., *New Jerome Biblical Commentary*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1990), 145.

38) C. Westermann, *Handbook to the Old Testament*, R. H. Boyd, trans. (Minneapolis: Augsburg, 1967), 55.

39) A. E. Hill and J. H. Walton, *A Surve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1), 102.

40) V. 해밀턴, 『오경개론』, 강성열, 박철현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173-174.

41) W. Brueggemann, “The Book of Exodus”, 687-689.

장하지 않는다(2:1-22). 2장의 말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고 언급한다. 1:1-2:22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활동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3장의 떨기 나무에서 극적인 등장을 준비하는 기능을 한다. 3장에서 하나님은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 모세를 불러 임무를 맡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름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언어유희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은 야웨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어나가겠다는 선포이다. 모세와의 계속된 대화 가운데 6:2에서 야웨는 드디어 이름을 밝힌다. ‘나는 여호와라.’ 이 이름의 궁극적 의미는 이후 전개된 파라오와의 전투를 통해 드러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선포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15:2-3).

야웨의 이름에 근거하여 출애굽기 1:1-15:21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1-2:22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야웨
- 2:23-6:1 이름을 암시한 야웨(모세와 파라오와의 대결)
- 6:2-14:31 이름을 드러낸 야웨(파라오와 야웨와의 대결)
- 15:1-21 이름을 증명한 야웨(갈대바다에서의 승리)

출애굽기의 주제는 모세의 등장,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야웨의 구원활동이 결합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웨가 어떤 신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름을 통해 야웨의 속성과 본질을 드러내며, 이집트의 파라오와 대결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능력을 드러낸다.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야웨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며 야웨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6:7; 8:22; 9:16). 이집트 파라오와의 마지막 전투가 끝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야웨라는 이름의 본질과 속성을 알고 고백하게 된다. ‘야웨가 그의 이름이다’(15:3).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야웨의 이름을 알고 어떻게 야웨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야웨의 침묵에서 야웨의 극적인 등장과 이름을 알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한 심판과 갈대바다에서의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야웨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파라오와 태양신 라의 이름은 가려진다.

야웨의 이름뿐만 아니라 야웨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이름들 역시 드러냄과 감춤을 통해 문학적 의도를 보여준다. 1장에서 십브라와 부아의 이름은

드러나 있는 반면 파라오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하찮은 자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위대한 인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려 함이다. 2:1-10에서 모세의 가족들의 이름은 감추어져 모세의 탄생의 비밀스런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6:20의 족보를 통해 그들의 이름은 드러나게 된다. ‘모세’라는 인물의 의미는 갈대 바다에서의 구원을 암시하는 예언적 성격을 지니며, 그의 아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의미 역시 파라오의 ‘쫓아냄’을 암시하기도 한다.

### 3.2. 신학적 의미

출애굽기 1:1-15:21에서 이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 가진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름이란 그 존재 자체이며 본질이며 특성이다. 그 이름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애굽기의 서론(1:1-7)에 나오는 조상들의 명단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2:24), 엘 샤다이(6:3) 등 조상들의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 이전의 하나님과 출애굽 사건 이후의 하나님을 연결시켜 준다. 이름이 드러나기 전의 본문인 1:1-2:22에서 야웨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때에도 드러나지 않게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상들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했던 언약이 위기 속에 놓였을 때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책략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이 기간에 하나님은 직접 드러내지 않았지만 섭리적으로 간섭해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과 모세의 탄생을 돕고 있음을 보여준다.

2:23-6:1에서 야웨는 처음으로 모세에게 등장한다. 이 본문에서 야웨는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이름의 어원이 가진 의미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모세에게 능력을 준다(3:13-14). 그 약속을 믿고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와 대결에 나섰다. 그러나 파라오의 방해공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곤경에 밀어 넣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자 모세는 야웨께 호소한다. 야웨는 자신이 직접 파라오에게 일을 행할 것이며 모세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6:1).

6:2-14:31에서 야웨는 이름을 밝히고 파라오와의 대결에 나선다. 6:2-3에서 야웨는 자신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며 자신이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콥에게 나타났던 ‘엘 샤다이’이지만, 야웨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6:3에서 언급된 야웨는 조상들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분임과 동시에 현재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미래에 펼쳐질 해방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고통에서 해방할 분임을 드러낸다. 이후 파라오와의 전투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파라오와 라를 비롯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함으로써 이집트인들조차도 야웨의 이름을 알게 된다.

야웨의 속성과 본질은 10가지 재앙과 갈대바다에서의 승리 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에서 잘 증명된다(15:2-3). 야웨의 이름의 본질과 특성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음을 말해준다. 그 특성은 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고백 속에서도 드러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18:11).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근동에서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 이름을 불러 그 이름이 가진 속성을 활용하려는 마술적 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42)</sup> 하위의 신들이 상위신의 이름을 알아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시도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야웨는 이름을 드러낸다. 이것은 야웨는 마술사나 다른 신들의 술수에 놀아날 분이 아님을 말해준다. 반면 이집트에서 신으로 숭배된 파라오와 태양신 라와 수많은 신들은 이집트 방식으로 이름을 숨기면서 야웨와 대결을 벌이지만 야웨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조롱당하고 패배한다. 그들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지만 신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집트인들도 궁극적으로 야웨의 이름을 알게 된다(7:5; 14:4). 야웨는 최고신이므로 이집트식 사고에 따라 이름이 알려지든 감추어지든 간에 관계가 없다는 선포이다. 파라오는 야웨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온다(14:17).<sup>43)</sup> 드러난 야웨의 이름에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야웨는 마술적 힘이나 주술에 따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야웨뿐만 아니라 산파인 십브라와 부아,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의 이름도 드러난다. 이들의 이름은 드러나 있지만 야웨의 섭리하에 보호받으며 야웨의 이름을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구현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한다.

42)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출 20:7)는 십계명의 3계명은 야웨의 이름을 오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이다.

43) 야웨의 영광은 40:34-38에서 정점을 이룬다. 브루그만(W. Brueggemann)은 출애굽기를 해방에서 영광으로 가는 과정으로 읽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W. Brueggemann, “The Book of Exodus”, 683.

#### 4. 맺는 말

이 글에서 필자는 출애굽기의 유대교 명칭인 ‘쉐모트’가 출애굽기 1:1-15:21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왜 출애굽기의 전반부에 이 주제가 활용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집트라는 정치 지리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시 이집트는 가장 강한 나라였고 신들의 나라였다. 태양신 라를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서로 연결되어 상하위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 구조의 정점에는 태양신 라의 아들인 호로스의 현신(現身)으로 숭배되던 파라오가 있었다. 이 파라오와의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야웨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므로 ‘야웨’라는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싸움을 시작한다. 그것은 신들의 비밀스런 이름을 숨기려했던 이집트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 전략이었다.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을 완전히 심판했다는 것(12:12)은 파라오 중심의 이집트 지배체제와 그를 뒷받침하던 신들에 대한 승리를 의미한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야웨의 이름을 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다.

출애굽기에서 ‘쉐모트’의 중요성은 1:1-15:21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 후에도 이어진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웨라는 이름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름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이름이 지닌 속성을 알고 그와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집트에서 노예해방과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고, 율법을 삶 속에서 구현하며, 성막에서의 예배를 통해 시내 산 사건을 지속적으로 현재화하는 방법을 알아가며 배우게 된다(15:22-40:38). 그 과정들 속에 야웨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속성을 보이기도 한다(34:6-7). 쉘모트(이름들)는 출애굽기를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역할을 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쉘모트는 출애굽기의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는 가장 적절한 용어이다.

#### <주제어>(Keywords)

출애굽기, 이름들, 야웨, 파라오, 태양신 라.

Exodus, Shemot, Yahweh, Pharaoh, Sun God Ra.

<참고문헌>(References)

- 더햄, J., 『출애굽기』, 손석태 역, WBC, 서울: 솔로몬, 2000.
- 유윤종, “이름을 밝히는 것인가? 거부하는 것인가?: ‘신의 비밀스런 이름’에 비추어본 출애굽기 3:14”, 『서양고대사 연구』 46 (2016), 7-34.
- 조철수, 『수메르 신화』, 서울: 서해문집, 2003.
- 해밀턴, V., 『오경개론』, 강성열, 박철현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 Abba, R., “The Divine Name Yahweh”, *JBL* 80 (1961), 320-328.
- Albright, W. F., “Jethro, Hobab and Reuel in Early Hebrew Tradition”, *CBQ* 25 (1963), 1-11.
- Andiñach, P. R., “Prologue to Liberation on Exodus 1:1-7”, *Word & World* 33:2 (2013), 140-146.
- Blackburn, W. R., *The God Who Makes Himself Known: The Missionary Heart of the Book of Exodus*, Downers Grove: IVP, 2012.
- Bloch, J., “Is the Egyptian Sun God Re Mentioned in the Bible?”, *JSOR* 14 (1930), 48-60.
- Brueggemann, W., “The Book of Exodu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ume 1, Nashville: Abingdon, 1994, 677-981.
- Bryan, Betsy M., “The Eighteenth Dynasty Before the Amarna Period”, Ian Shaw, ed.,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18-271.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Magnes Press, 1967.
- Childs, B. S., *Exodus*, OTL, London: SCM, 1974.
- Clifford, R. C., “Exodus”, Raymond E. Brown, Joseph A. Fitzmyer, and Roland E. Murphy, eds., *New Jerome Biblical Commentary*,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1990.
- Fokkelman, J. P., “Exodus”, R. Alter and F. Kermode, eds.,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Cambridge: Belknap, 1987.
- Freedman, D. N., “יהוה YHWH”,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5 (1977), 500-525.
- Gordon, C. H. and Rendsburg, G. A.,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New York; London: W. W. Norton & Company, 1997.
- Hertog, D. C., “The Prophetic Dimension of the Divine Name: On Exodus 3:14a and Its Context”, *CBQ* 64 (2002), 213-228.
- Hill, A. E. and Walton, J. H., *A Surve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1.
- Hort, Greta, “The Plagues of Egypt”, *ZAW* 69 (1957), 84-103; 70 (1958), 48-59.

- Jacob, B., *The Second Book of the Bible, Exodus*, Hoboken: KTAV, 1992.
- Knowles, M. P., *The Unfolding Mystery of the Divine Name: The God of Sinai in Our Midst*, Downers Grove: IVP, 2012.
- Lapsley, J. E., *Whispering the Word: Hearing Women's Stories in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 Martens, E. A., *God's Design: A Focus o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94.
- Moriarty, F. L., "Word as Power in the Ancient Near East", H. N. Bream, et al., ed., *Light Unto My Path*,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74, 345-362.
- Noegel, S. B., "Literary Craft and Performative Power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Hebrew Bible in Context", K. Smelik and K. Vermeulen, eds., *Approaches to the Literary Readings of Ancient Jewish Writings*, Leiden; Boston: Brill, 2014, 19-38.
- Rendsburg, G. A., "Bilingual Wordplay in the Bible", *VT* 38:3 (1988), 354-356.
- Rendsburg, G. A., "The Egyptian Sun-God Ra in the Pentateuch", *Henoch* 10 (1988), 3-15.
- Ritner, R. K., "The Legend of Isis and the Name of Re (1.22)", William W. Hallo and K. L. Younger, eds., *The Context of Scripture*, vol. 1, Leiden: E. J. Brill, 1997, 33-34.
- Rose, M., "Names of God in the OT", *ABD* IV (1992), 1001-1011.
- Rosenblatt, S., "A Reference to the Egyptian God Re' in the Rabbinic Commentaries on the Old Testament", *JBL* 60 (1941), 183-185.
- Routledge, R., *Old Testament Theology: A Thematic Approach*, Downers Grove: IVP, 2008.
- Sarna, N. M., *Exodu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New York: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 Smith, M. S., "The Literary Arrangement of the Priestly Redaction of Exodu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BQ* 58 (1996), 25-50.
- Westermann, C., *Handbook to the Old Testament*, R. H. Boyd, trans., Minneapolis: Augsburg, 1967.
- Wright, C. J. H., "Response to Gordon McConville", Craig Bartholomew, et al., eds., *Can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Zondervan, 2006, 282-290.
- Zimmerli, W., *I am Yahweh*,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2.

<Abstract>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Names  
in the Book of Exodus 1:1-15:21**

Yoonjong Yoo  
(Pyeongtaek University)

Name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literature of ancient Near East. It had been believed that names have the power to make true its nature and characters.

Thus having the authority to call names means to have the power to control the power of people or deities represented in their names. According to Egyptian mythology, divine order is controlled by hidden names of superior gods to inferior ones.

The English book name of Exodus is called Shemot (Names) in the Jewish tra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word of Exodus 1:1. This paper purposes to show how names in Exodus 1:1-15:21 are presented, and pursues to interpret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names according to the general concept of names in ancient Near East. Methodologically, I will take synchronic approach by which does not raise how the texts had been developed.

It is noteworthy that on the one hand, names are hidden, but are revealed in Exodus 1:1-15:21 on the other. First of all, I've done exegetical work with texts in which personal or divine names are revealed and hidden, and classified texts in which names are revealed as follows: ancestors from Canaan (1:1-7), two midwives (1:15), Moses (2:10), Moses's wife and son (2:16-22), YHWH (6:2-5), Moses's parents and brother (6:16-20), and YHWH (15:3). The list of hidden names are as follows: Pharaoh (1:8, 11, 15, 17, 18, 19, 22), Moses' parents and sister (2:1-10), divine name Ehye (3:14), the Sun god Ra (10:10, 12-14, 21-23), and Egyptian gods in ten plagues (7:14-10:29; 12:12).

It is maintained that the motif of revealing and hidden names in Exodus 1:1-15:29 has literary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Literary significan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name motif supports that the first part of Exodus is 1:1-15:29. 2) The divine name YHWH plays a key role: YHWH not revealed (1:1-2:22), YHWH alluded (2:23-6:1), YHWH revealed (6:2-14:31), and YHWH proved (15:1-21). 3) Moses's name alludes future redemption in the

Reed Seas. It also has the following theological implications: 1) In 1:1-2:22, YHWH seems to be hidden, but he works secretly to protect the people of Israel. 2) In 2:23-6:1, YHWH appears to Moses without revealing his name, but alluded his assurance of being with Moses. 3) In 6:2-14:31, YWHH is revealed in the struggle with Pharaoh, and destroyed Pharaoh with ten plagues and the great victory in the Reed Seas. 4) In 15:1-21, the power of the name YHWH is proved.

It is concluded that knowing the name YHWH is to know the nature and character of YHWH. The name motif occurs mainly in the first part of the book of Exodus, but in the second (15:22-18:27) and the third parts (19:1-40:38), Israelites learn to know how to live with the name YHWH and to serve the name YHWH. Accordingly it is suggested with certainty that the name 'Shemot' be the most appropriate name for the book of Exodus.